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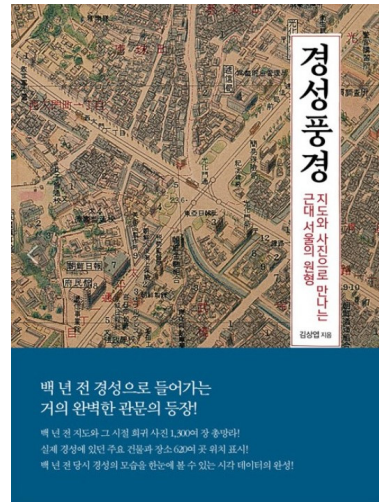
김상엽 지음,

『경성풍경: 지도와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서울의 원형』

(해화11117, 2025.9.5.)

김상엽*

2000년대 초반 한국 근대의 미술시장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알게 된 <경성정밀지도>를 통해 ‘경성미술 구락부’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출판업자 시라카와 유키하루(白川行晴)가 1933년 발행한 <경성정밀지도>는 1:4,000이라는 고축척에 건물명, 번지, 인명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등 단순한 지도를 넘어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서울)의 사회적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경성정밀지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2015년 여름 우연히 들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대경성부대관』을 소개받았다. 『대경성부대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일본어 신문사 가운데 하나인 조선신문사에서 1936년에 발행한 <대경성부대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한 책으로 2015년 3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출간했다. <대경성부대관>은 조선 시정(施政) 25주년을 기념하여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경성부와 인천부를 그림으로 그린 컬러 파노라마 지도로서 도시의 조직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입면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 경기도문화유산위원회

공중에서 수직으로 지면을 바라보고 정사영(正寫影)된 상태를 지도상에 표기하는 일반 지도 방식으로 제작한 <경성정밀지도>와 그림지도 방식으로 제작한 <대경성부대관>은 경성이라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표현방식과 수록된 내용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두 지도에 당시의 거리 사진과 건물 사진 등을 더하면 ‘황금광시대’라 불리는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근대 경성의 건축물과 지리정보를 결합한 책을 만들기로 했다. 건축물과 도시를 역사, 풍경, 문화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지리적, 공간적 맥락을 종합한 하나의 결과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경성 관련 사진은 대체로 특정 건물이나 거리 장면만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쳐 해당 건축물 또는 거리가 경성이라는 도시와 유기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컸다.

근대 건축물 사진과 지도의 연결은 일부 저술에서 시도된 적은 있으나 남북으로는 북한산에서 용산, 동서로는 송인동에서 마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거리, 건축물 사진을 망라하여 지도와 연결하는 작업은 『경성풍경』이 처음이다. 작업 진행에 따라 1930년대 경성의 거리 모습이 점차 드러났고 오봉빈의 조선미술관, 경성 모더니스트들의 아지트 낙랑파라, 구보 박태원의 집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료수집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력이 들었다. 이 책의 서술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처음에는 당시 활동한 미술가의 거주지와 전시장 등의 지리 정보를 종합하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언론, 출판, 공연, 여가, 음식, 주거, 빈민, 소비, 유흥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자료가 쌓였다. 자료의 분류와 연구는 차후에 진행하고 지금은 경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윤곽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편집자의 말에 동의한 뒤에야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2015년 겨울 출판계약에서 2025년 9월 5일 출간까지 꼬박 10년이 걸린 셈인데, 출간 한 달 전에는 3주간의 ‘편딩’을 진행했다. “10만원이라는 고가에 1,080페이지나 되는 든중한 책을 누가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사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3,000만원 가까운 편딩이 이루어졌고 초판 2,000부의 절반 이상이 출간 한 달여 만에 팔려나가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서울의 옛 모습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이렇게 뜨거웠다. 친일 대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시야로 일제강점기를 평가하고 이해하던 이전의 경향과 달리 근대 서울의 실제 모습을 보고자 하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경성풍경』이 근대 서울의 원형, 나아가 근대 시각이미지와 지리정보의 연결 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따름이다.